



5면
역사적 평가 못받고 있는
4.4 시위 재조명하다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0년 11월 2일 월요일 (음 9월 17일) 제264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송하진 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지난달 30일 부안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역 상생'을 위한 지역균형뉴딜 전북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역상생' 지역균형 뉴딜방안 모색

부안서 민주당 최고위... 지도부 총출동 '소통의 장' 전북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지역 현안 지원 요청

전북도는 지난달 30일 부안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 등 전북형 뉴딜사업과 내년 주요 국가예산사업을 건의하고, 국립공공보건대학합설 신속 통과, 한국토산산업진흥원 지정·운영 등 전북현안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그린뉴딜 사업의 그린에너지 사업이 구체화되는 현장인 부안군에서 지역균형뉴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김종민 원내총무, 신동근·인창자·박홍배 최고위원, 박광온 사무총장, 한영애 정책위의장, 홍영표 참총은 지방정부위원장, 심상일 부위원장, 이광재 K-뉴딜본부장,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 오영훈 당대표 비서실장, 김영배 당대표 정무실장, 신영대 대변인, 강선우 대변인, 한준호 K-뉴딜본부 대변인, 김성주 도당 위원장 이원택 의원 등 당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해 도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관련기사 3·8면)

이날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역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신 데 대해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감사와 함께, 오랜기간 해결되지 않은 현안과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해 당 차원에서 아낌없이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먼저, 전북도는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다양한 뉴딜사업 발굴을 위해 전북형 뉴딜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조기 출범해 2차에 걸쳐 265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추진상황과 대표사업인 '그린수소생산클러스터 조성',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러한 각 시도의 대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또는 간이예타 실시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한국판 뉴딜사업은 대부분 중앙공모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균형 뉴딜이라는 이름과 달리 산 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면서, 지자체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보조금 제도 등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이어 내년 주요 국가예산사업으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이후 전북 조선산업 위기 극복과 지역역량 강화를 위해 ▲조선해양 설치·운송인프라 구축사업(50억), ▲군산항 7부두 아적장 구축(80억) 등 4개 사업,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품목 선택 및 재배기술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농업기후변화대응 교육센터 건립(7억), 스마트팜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189억) 등 3개 사업, 전북의 우수한 국화자원을 발굴 보존·정리하기 위한 ▲전라유화진흥원 건립(5억), 역사적인 동학농민혁명 정신가치의 계승을 위한 ▲동학농민혁명 부안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의 전당 건립(3억) 등 2개 사업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새만금 공항, 신항만 철도와 함께 복합물류 트라이 포트(Tri-Port) 완성 가시화로 내무개발 가속화가 기대됨에 따라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272억),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 지원(108억) 등 3개 사업과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익산 왕궁진여 현업축사 전량 매입을 위한 ▲익산 왕궁 정자동원 현업축사 매입(276억), 도내 장애인들의 전문적인 재활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북권역재활병원 건립 등 3개 사업 등도 설명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아울러 송 지사는 국립공공의대법, 새만금사업법 등 법안 제·개정 및 전북지역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3 금융중심지 지정, 탄소산업의 국가 중합컨트럴 타워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및 운영, 조선산업 생태계 유

지를 위한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시급한 전북 현안사업에도 따뜻한 관심과 협조 또한 요청했다. 특히,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사남대 폐교에 따른 지역민의 상실감과 지역경제 회복의 관점에서 꼭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호상기자

기업·구직자 지원사업 '한 눈에'

전북고용안정사업단 홈페이지 오픈... 쌍방향 소통 강화

도내 기업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전북도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개설됐다. 전북도는 1일 고용안정 특별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주도하는 전북고용안정사업단 홈페이지(www.jbwork.or.kr)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전북고용안정사업단 홈페이지는 많은 기업이 담겨 있는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모든 것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구성됐다. 사업정보에서부터 기업지원, 인력양성 교육, 구인·구직 등 일자리 관련 토털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13개의 많은 기관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해 수행기관별 지원사업 유형, 지원사업 공고 등을 누구든지 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Q&A' 메뉴를 통해 지원사업 관련 문의·건의 사항을 접수

하면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는 쌍방향 소통을 강화했다. 홈페이지는 사용자의 스마트 기기(PC, 스마트폰 등) 유형과 상관없이 화면의 크기를 자동으로 최적화해 보기 좋고 편하게 사용할 있도록 하는 데에도 힘썼다. 이종훈 전북고용안정사업단장은 "도내 기업과 구직자들이 지원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꾸몄다"며 "방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상용차산업의 위기 극복 ▲고용성장산업인 농식품산업의 고도화로 더 좋은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거버넌스 구축 등에 올해부터 5년간 1000억 원을 투자, 안정적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을 목표로 추진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다. /유호상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북도 광역징수기동반 가택수색 단행

귀금속·시계·명품가방 등 동산 34점 압류

전북도와 시군이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하며, 도내 최초로 고액 체납자에게 대한 가택수색을 지난달 20일부터 29일까지 단행했다고 밝혔다. 도 광역징수기동반은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4명의 주택을 수색해 귀금속과 시계, 명품가방 등 34점(시가 2,600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하고 현금 1,000만 원을 징수했다. 이번 가택수색이 진행된 체납자 4명의 지방세 체납액은 1억8,000만원에 달했다. 체납자 A씨의 경우 2018년 지방소득세 8,700만원을 체납하고도 배우자 명의의 50평 이상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급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가택을 수색했고, 귀금속과 명품시계를 압류했다. 동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체납자의 은닉행위가 있었지만, 세부 조사관의 수색을 벗어날 수 없었다. 조사관이 세탁실을 수색하던 중 빨

래 바구니 옷가지 안에 숨겨놓은 작은 가방을 찾아냈고, 가방을 열어보자 금반지·황금열쇠·골드바 등 숨겨놓았던 귀금속이 나왔다. 관계자는 전했다. 이 외에도 불법 명의차량(일명 대포차)도 수색 중 적발했다. 체납자 B씨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북체육회 브랜드 슬로건 선정...최우수작 등 4편

전북체육회의 브랜드 슬로건이 '건강한 체육, 행복한 도민, 빛나는 전북'으로 결정됐다. 지난달 30일 도 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슬로건 공모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우수작과 우수작, 장려작 등 총 4편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300편이 넘는 작품이 접수됐고, 도 체육회는 엄격한 심

사를 통해 최종 4편을 선정했다. 최우수작으로는 '건강한 체육, 행복한 도민, 빛나는 전북'이 선정됐다. 이는 모두가 누릴 수 있게 즐거운 체육을 선사해 도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세계 속에 빛나는 전북 체육의 위상을 높이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우수작은 '전북체육, 다함께, 우리 전북, 하나'가 결정됐다. /장은성 기자